

3. 창간 40주년에 부쳐

로타리코리아 편집실에 바란다



金錫和
3620 전총재·새天安RC

로타리코리아지는 지난 40년간 수많은 역경을 딛고 묵묵히 좋은 잡지 만들기에 노력하였던 로타리코리아 편집팀에 힘입어 괄목할 만한 성장과 발전을 거듭했다. 지금까지의 노고에 아낌없는 격려와 찬사를 함께 보낸다. 하지만 막연히 주어진 직책 속에서 이름을 걸고 안주해 오지는 않았는지 편집실은 한번쯤 자기 성찰을 했으면 한다.

물론 그 자리에 앉기까지에는 예외적인 재능을 검증받은 재능인들일 것이다. 그러기에 당신들의 영감은 개인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대중을 위해 주어진 것이라는 점 또한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진정 글을 쓰고 책을 만드는 사람들의 사명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사회를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남다른 재능을 소유한 귀한 사람들이다. 그러기에 나는 존경하고 부러운 시선으로 당신들을 바라본다.

이제는 과거의 편집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해 젊은 세대들이 대거 영입된 모임집단에 부응하는 활력 넘치는 편집방향 모색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활자를 매개체로 하는 유인물 책자는 인터넷 동영상 시대 속에서는 책꽂이의 한가로운 장식품 정도로 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추세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앞으로 로타리에 입회하는 신입회원은 모두가 동영상에 익숙한 신세대들을 감안하여 편집의 기본 틀도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RI공식 지역잡지이기에 편집상 많은 제약이 있으리라 생각되나 글이 갖는 순 기능

을 십분 발휘하여 인간의 내면에 잠재되어있는 아름다운 심성을 자극해 봉사하고 싶은 욕구를 증진시키고, 신세대들이 즐길 수 있는 편집 설정 속에서 잡지를 보는 즐거움과 지혜를 함께 얻는 로타리코리아지로 변모하기를 당부드린다.

글이란 본래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술이다. 인쇄매체를 통해 나온 글이란 그 자체가 약으로도 작용하고, 독으로도 변한다. 명약으로 처방된 글에는 인간의 품성을 순화시키는 해독제가 들어있고, 사회의 피를 맑게 하고, 우리들의 몸 속에서 풍기는 악취를 씻어 낼 것이다. 그러기에 글은 처음부터 인간의 가슴을 향해 써야한다. 가슴을 향한 글은 인간을 정화하고, 사회를 개혁한다.

글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구제에 있다. 특히 우리 사회같이 도덕적 기준이 태풍만난 돛단배처럼 흔들리고, 가치관이 배멀미하듯 울렁거리고 있는 현실 속에서 양질의 글은 정신적 귀향지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과연 로타리코리아 잡지 속의 글은 본래 글이 갖는 성실한 순기능 속에서 편집되고 있는지...

“한국 로타리 이대로 좋은가”라는 여론조사 설문에 “이대로 안된다. 이제 시대에 걸맞게 변화하여야 산다”라고 답한다.

새로운 방향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글이라고 지적했는데 정신적 지주요 방향타를 조정하고 있는 로타리코리아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도록 편집되어 로타리의 갈 길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이달의 인물’ 고정란 신설하기를...



朴 哲
3720 총재·馬山港都RC

로타리코리아 40년사 발간은 이 가을에 또 하나의 소담스런 큰 열매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공식지역잡지 로타리코리아는 40년 전에 창간호로 고고하게 세상에 태어나 지금까지 로타리인들의 각종 정보와 정신적 교양지로서 지대한 역할을 해 오고 있으며, 한국로타리의 산 역사입니다.

국제적인 행사인 폴리오플러스 사업으로 소아마비 박멸과 각종 재난 복구에 기여하는 로타리의 활동상을 알리며 격려하고, 국내적으로는 사랑과 봉사로서 뭉쳐진 클럽활동으로 이웃에 헌신하는 아름다운 사연과 사진들을 게재해 로타리인 각자가 스스로 분발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는 그야말로 뛰어난 지침서입니다.

더욱 훌륭한 것은 국제대회 개최 때마다 주변 자료가 매우 유익하였으며 그 나라와 도시의 특성 및 개최지의 정서를 총망라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내용이 풍부하였습니다. 또한, 풍물과 민속 등을 게재한 것은 낯선 방문 로타리안들에게 매우 친절하고 자상한 편집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로타리코리아지에 희망사항이 있다면 매월 ‘이달의 인물란’을 설정하여 한국로타리를 빛낸 분들을 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딛고 봉사의 대열에서 불철주야 노력하였던 여러 회원들의 경험담을

소개해 로타리인들의 귀감으로 삼을 수 있게 하고 클럽활동의 성공사례, 애로점 등을 더 많이 게재하여 후진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아이디어와 훌륭한 선배들의 진취적인 봉사와 가르침을 바탕으로 실적 위주보다 내실있고 미래 지향적인 모습으로 로타리가 발전되어진다면 이것을 로타리코리아지의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로타리코리아지를 대할 때마다 새삼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 물질적 자원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같이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우리로 하여금 항상 생명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도록 도와주며, 때로는 관용을 배우고 그로 인해 평화로움을 얻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로타리코리아지에 이름이 실리고 로타리 안에서 그리고 세상에 널리 알려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보람있는 일을 하지 않고 이름을 탐내는 사람만큼 탐욕하고 슬기롭지 못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소중하고 보람 있는 일을 남겨놓는다면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히 그 이름은 먼 미래에까지 전해질 것입니다. 참다운 삶의 결실없이 이름을 남긴다면 그것은 어리석거나 불행한 명성일 뿐일 것입니다.

3. 창간 40주년에 부쳐

로타리 재단기부 3관왕 달성을 회고하며!

劉應鍾
3740 전총재 · 淸州RC



국제로타리는 봉사의 이상이라고 하는 조건 없는 기본이념을 지니고 있다. 봉사란 원래 '남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함'을 일컫는다. 곧 남의 뜻을 받들어 섬긴다는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로타리가 추구하는 가장 아름답고 가치있는 삶의 행위이자 사랑의 손길을 전하는 구체적 방법이 바로 봉사인 것이다.

인간의 행동은 두 가지 동기에서 비롯되고 있다. 하나는 보상동기요, 또 다른 하나는 기쁨동기인 것이다.

하지만 전자는 중도에 궤도를 이탈하고 그릇된 누를 범하고 만다.

자신의 욕구를 가늠하는 봉사의 시발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피력하는 바이다.

20세기 초 1905년 2월 로타리의 창시자 폴 해리스 역시 이러한 기쁨의 동기에서 유발된 참 봉사의 씨앗을 맨 처음 미국의 시카고클럽에 뿌리고 온 인류에 그 봉사의 꽃이 확산되기를 간절히 바란 것이다.

창립 100주년을 즈음한 오늘날 우리 로타리는 많은 발전을 거듭하여 세계 최고의 봉사단체로서 초석을 굳건히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로타리의 잘못된 이해로 단순한 친목중시의 유니트(unit) 클럽활동과 협의(狹義)의 봉사의식만이 팽배한 채, 로타리의 근본이념을 무색케하는 다수의 목소리가 만연되고 있음에 우려와 안타까움을 자아내지 않을 수 없다.

21세기 글로벌 시대, 이제 로타리는 초심으

로 돌아가 넓은 안목의 봉사를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큰 폭의 변화를 시도해야만 한다. 이기적이 아닌 이타적 봉사의식을 고취하고, 국경과 이념을 초월한 세계사회의 국제봉사, 즉 저개발 국가의 질적 향상을 위한 광의(廣義)의 봉사의 손길에 더욱 큰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한국은 세계 로타리 3대 강국의 우위를 확보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는 이에 걸맞는 참 봉사를 전개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대체로 그렇지 못한 경향이 매우 크다.

한가지 예로 재단기부에 있어 '왜 매년 남의 나라에 돈을 갖다 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릇된 인식의 질문에 실소(失笑)를 지은 적이 자주 있었다.

로타리 지도자들의 책임 통감과 실질적 역할이 한층 더 요구되지 않을 수 없다.

넓은 가슴에 빛나는 로타리 배지를 단 로타리안으로서 재단기부는 당연한 기본 의무이며 이러한 광의(廣義)의 봉사 결과야말로 인류의 공존·공영을 위한 길이요, 우리 로타리안 자신의 존재가치와 그 의미를 확실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3년 전 로타리와의 인연을 나는 숙명으로 여기고 있다.

일찍이 봉사의 강한 집념으로 장학사업에 열의가 크셨던 선친의 영향 또한 적지 않게 작용했으나, 무엇보다도 숭고한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한 로타리와의 만남 그 자체는 내

생애에 중요한 윤활유 역할을 해주었다.

로타리를 통한 자아실현과 봉사의 기쁨에 대한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로타리와 연을 맺은지 10년 만에 교황선출 방식과 같은 방식의 선출로 최연소 클럽회장직을, 또한 2001~02년도 역시 최연소 지구총재를 역임하는 영광이 있었다.

당시 로타리에 쏟은 열정을 일컬어 지구의 못 로타리안들은 총재가 로타리에 미쳤다고 까지 했다.

그렇다! 진정한 로타리의 발전을 위하여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로타리 지도자는 로타리에 미쳐야만 한다.

회고컨데, 2001~02년도 한국로타리는(존 9) 17개 지구가 총력을 기울인 결과 34개 존(163개국)에서 재단기부 1위를 하였다.

또한 본 3740지구 역시 530개 지구 중 연차기부 Per Capita US\$226.1(세계평균 55.19\$)로 세계 1위, 본 지구 소속의 청주클럽이 3만1,000개 클럽중 Per Capita US\$1,625로 당당히 세계 1위를 기록했다.

한국로타리가 존, 지구, 클럽 차원에서 동

시에 세계 1위를 모두 석권하는 영광의 쾌거로 로타리 역사상 3관왕의 진기록을 장식하고 그 위상을 세계속에 확고히 하게 된 것이다.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해내겠다는 로타리 지도자들의 강한 열정과 추진력만이 로타리를 진일보시킬 수 있는 기틀이 된다는 것을 거듭 상기하는 바이다.

폴 해리스는 “진정한 로타리는 자신이 얻은 행복을 보다 어려운 처지의 이웃에 힘껏 나누어 주는 기쁨, 나에게 주어진 풍요를 사회에 환원해 이 세상을 보다 밝고 아름답게 하는 것”이며, “로타리안은 인류의 보다 나눔에 몸바치고, 태어날 때보다 죽을 때의 보다 나눔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하였다”

이렇듯 큰 폭의 봉사의식 변화를 갈구하고 평생 로타리를 더없는 배움의 장으로 여기며 영원한 로타리안으로서 인류에 봉사하는 삶을 거듭 다짐해본다.

로타리코리아가 미래지향적 비전 제시해야

金吉賢
3750 전총재 · 安養坪村RC



우리는 2005년 국제로타리 창립(創立) 100주년을 눈앞에 두고 로타리코리아 창간 40주년을 맞게 된다.

이제 우리는 지나온 40년을 되돌아보면서 과거(過去)를 성찰(省察)하고, 새 시대(時代)를 맞이하는 새로운 각오(覺悟)와 밝은 지표(指標)를 모색(摸索)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국제로타리는 지난 1세기동안 눈부신 성장(成長)과 더불어 세기사(世紀史)에 인류구원(人類救援)의 봉사실적(奉仕實績)을 크게 남기며 로타리 중흥을 이룩해냈다.

그러나 로타리 탄생 100주년을 눈앞에 두고 커다란 난국(亂局)에 처해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겠다.

3. 창간 40주년에 부쳐

성장(成長)은 둔화(鈍化)되고 봉사의 이념도 쇠퇴하고 있으며, 로타리 이미지 또한 퇴조되고 있다.

국제로타리의 이러한 조류(潮流)속에서 한국로타리도 결코 예외일 수는 없다. 로타리안의 질적 수준은 날로 저하되고, 로타리클럽의 운영과 활동도 점점 퇴보(退步)하고 있다.

주변정세는 빠르게 변하고, 로타리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도 날로 변하는데, 우리의 지역사회 봉사는 방법이나 내용에서 한발도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가 우리를 보는 시선과 평가가 결코 곱지 않은 이 심각한 현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때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창간 40주년을 맞이하는 로타리코리아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국제로타리 선진 5개국 대열(隊列)에 올라 있는 우리 한국로타리(존9)의 아쉬운 점은 지속적 발전의 원동력(原動力)을 가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있지 않다는 점이다.

국제로타리 현임원을 중심으로 총재단과 모든 클럽, 그리고 전회원이 혼연일체(渾然一體)가 되어 일사불란(一絲不亂)하게 움직일 수 있는 제도적(制度的) 장치(裝置)나 전통이 없다는 것이다.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지역사회가 로타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4만 5,000여 명의 한국로타리안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등을 수렴(收斂)하고 총재단에서는 시정(是正)발전책을 도출해야한다.

현 총재단에서는 이를 수용해서 철저하게 실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서 피드백(Feedback)시키는 업무의 순환단계(循環段階)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로타리코리아는 여론을 수렴하고 미래지향적 비전을 제시하고, 피드백시키는 기능을 담당해주어야 한다고 본다.

로타리코리아는 지난 40년간 RI의 지식을 전파하고, 로타리 상호간의 소식을 전하면서 로타리안의 친목과 한국로타리 발전을 위해 성공적 역할을 다했음을 높이 평가하는 바이다.

이제부터 로타리코리아는 한 단계 뛰어넘어 한국로타리의 내일을 지향하는 밝은 비전을 제시하고, 4만여 로타리안의 긍지와 도덕적 명예심을 고취시켜야 한다.

또한 로타리코리아는 초아(超我)의 봉사정신을 재함양(再涵養)시키는 한국로타리 언론의 기능을 담당하여 한국로타리 발전의 선도적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